

【특집】

형이상학에서 가치론까지*

—김영정 교수를 그리며—

임 일 환

【주제분류】 분석철학, 형이상학

【주요어】 논리학, 논리철학, 사건 존재론, 3범주 존재론, 존재론적 환원

【요약문】 이 글은 고 김영정교수의 철학적 작업의 함축과 가치를 지난 30년간의 분석철학의 발전의 맥락에서 해명하고 발전시킨다. 첫 부분은 김교수 철학함의 스타일 그리고 주로 논리학과 수리논리와 관련된 작업들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은 김교수의 형이상학 및 존재론에 관한 논의를 개괄하고, 사건 존재론의 철학적 의의를 전통적 두 범주 존재론과 대비를 통해 해명한다. 필자의 주요 논증은 제3 범주로서의 김재권식 ‘사건존재론’의 성립여부는 치섬, 김영정식의 전통적 두범주 존재론의 존재론적 환원에 달려 있으며, 데이비슨식 그것은 과인식의 존재론적 환원의 성립여부에 의존한다는 내용이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와는 달리 필자는, 데이비슨식 개별자 사건존재론은 본질적 모호성과 형이상학적 긴장을 깊이 감춘 이론이라고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형이상학과 가치론의 통합이라는 어려운 철학함의 가치를 음미한다.

* 이 글은 2010년 6월 25일 김영정교수 추모강연의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강연의 구어체적 표현에 양해를 구한다.

오늘 이 자리는 뜻하지 않게 그리고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신 김영정 선생의 학덕과 덕성을 기리고 가신 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이젠 그리운 분이 되신 분을 그리워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저 자신 돌이켜 보면, 1984년 아마도 뜨거운 여름이었던 7월이나 8월이라고 기억되는, 미국 동부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기차역전 광장에서 처음으로 김영정 교수를 만난 이래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늘 가까이서 선생의 학문작업과 삶을 보고 배우고, 늘 한발짝 앞서가는 선생의 발걸음을 따르다 보니 어느덧 햇수로 25,6년 사반세기의 세월이 갔다는 감회가 앞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각각 그 나름 각별한 관계와 추억거리가 있으시겠지만, 제게 선생은 무엇보다, 학문세계와 삶 전반에 있어, 멘토(mentor)와 같은 분입니다. 낯선 이국땅에 처음보는 거리에서 살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절절맬 때, 한마디도 못 알아 듣는 영어가 쏟아져 나오는 전화기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늘 통역사 역할을 기꺼이 해주신 분이 김 선생이고, 우리나라에서 정식 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제가 미국 땅 도착한 지 2개월 만에, 로데릭 치섬 교수의 “형이상학”과목의 중간고사를 앞두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이 학위논문을 쓰고 있던 그 바쁜 와중에도, 몇 시간이고 ‘개인지도’를 마다하지 않으신 분도 김 선생입니다. 잣 돌이 지난, 선생의 큰 따님, 친형이가 잠들지 못한다고 무더운 여름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끝없이 유모차를 한마디 불평 없이 밀고 당기던, 가슴이 따뜻한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게 보여준 분도 김 선생입니다. 저 자신이 귀국해서 강단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연구한 지 20년이 조금 넘어갑니다만, 늘 가까이에서 저를 이해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때로 채찍질도 마다하지 않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게 모나지 않게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저의 각별한 아군이자 후원자가 안 계신 이 자리에서, 바로 그분의 ‘지난’ 업적과 덕목들을 기리는 강연을 해야 하는 심정은 쓰라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겹부터 덜컥 납니다. 한 2

개월 전에 김기현 선생으로부터 추모강연의 부탁을 듣고, ‘제가 과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라는 강한 의문이 들었지만, 존경하는 이정모 교수님이 인지과학 관련부분의 강연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그간 발표되었던 김 선생의 논문, 저서, 번역서 기타 구할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도 같은 철학도로서 유사한 관심분야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지난 사반세기 김선생의 주요한 저작들, 논문들은 ‘대부분’은 읽어보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었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 과거의 이런 생각이 단순히 틀린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착각한 것은 선생께서 남긴 철학적 작업의 양입니다. 2005년인가부터 EBS 그리고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 등 대외활동에 바쁠 때에도, 직무에 걸맞은 작업들을 빠짐없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학진 데이터베이스가 10년,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불완전한 것이지만, 궁금해서 살펴본 학진 저역서 목록에는 47건의 저역서 목록이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행히 선생께서 세권의 주저로 논문들을 묶어봐 주셨지만, 여기서 빠진 술한 흠어진 논문들을 (아직도 이 목록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씩 찾아내서 다시 읽어보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논문들과 비교해 보는 작업은 그자체로도 제게는 무척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뛰어난 학자의 작업을 통해 지난 사반세기 한국 분석철학의 ‘발전’과 ‘진전’의 모습을 되새기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선생께서 보여주고 온몸으로 실천했던 ‘철학함’의 모습들 그리고 선생만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태도’라고 부를만 한 것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외국의 철학서적을 번역을 하든, 연구논문을 쓰든, 혹은 다른 학자의 발표문에 대한 논평문을 쓰든, 어떤 철학적 작업을 하든, 선생님 특유의 태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달이 잘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이고 싶은 선생의 초상의 양식 혹은 전체 윤곽 같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윤곽이 일단 그려지면 세부적 묘사로 우리는 논리학자체와 논리학의 교육과 보급 그리고 대중화에 관련 선생의 업적과

작업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논리학의 교육과 보급/대중화 뿐만 아니라 논리학자체에 학문적으로 매우 귀중한 작업을 선생이 남겼음을 보이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한국에서 논리학의 세 영역 전부에 지대한 영향과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 선생에게 있어 논리학은 형이상학 존재론 가치론 등 철학 아니 우리 인간의 영원한 주제들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 매우 유용한 통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형이상학적 문제와 물음들이 선생님의 작업을 구동하는 원초적 추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론, 심신론, 인공지능의 문제, 수반론에 대한 작업들을 되새겨보고 음미해 보는 부분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 스스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고 묻는 가치론의 물음은 우리가 사는 세계 전체와 그 속에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뼈대가 결정되어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물음들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형이상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뼈대와 구조만으로, 다시 말해 뜨거운 피와 땀과 살이 없이 하나의 ‘인간’의 모습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전달될 수 있다면 저 자신의 서투른 그림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I. 철학함의 모습과 태도

제가 88년 봄 학위 디펜스를 막 마치고 귀국하여, 당시 외국어대학에 근무하시던 선생을 찾아뵈었을 때, 아마도 귀국 3년차쯤이 될까 말까할 시기였는데, 제가 만난 모든 철학계 사람들이 김선생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가 되어 있음을 알고 놀랐습니다. 후일담이지만, 제가 외대에 들어가고 나서, 현재 명예교수로 계신 우야 강성위 교수님으로부터, “그 친구는 남의 학회발표문에 발표문보다 두세 배나 더 긴 논평문을 발표한 사람일세”라는 말씀을 듣고, 부랴부랴 수기로 된 원고의 카피를 구해다 읽었던 기억

이 납니다. 불행히도, 학회 발표장의 현장감이 물씬 묻어나는 문제의 장문의 논평문 카피는 현재 저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도 이백자 원고지로 150매는 족히 되지 않았을까 싶은 원고는) 다행히 현재 97년에 출판된 <언어 논리 존재>라는 선생님의 저서의 2장 「데 덕토와 데 레: 언어적 접근과 존재적 접근」으로 남아 있습니다.¹⁾

조금 젊으신 분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문제의 글은 원래 정대현교수의 「지칭: 언어적인가 존재적인가?」하는 86년도 철학회 발표문에 대한 논평문을 쓰시는 와중에 촉발되어, 단순히 리셀이란 한 위대한 철학자의 저명한 ‘한정 기술 이론 (definite description theory)’이란 철학적 이론의 해석을 넘어, 20세기 분석철학의 패러다임 쉬프트의 기원을 추적하고 요약하는, 진정 뛰어난 통찰이 넘치는 논문입니다. 정/김교수 간의 논쟁은, 약간의 역사적 설명을 하자면, 아직 이 땅에 한글 워드프로세서란 것 자체가 없었고, 한글을 프린트하는 제대로 된 그 흔한 프린터 자체도 없던 사반세기 전의 ‘아날로그’ 시대의 논쟁이었지만, 돌이켜보면 70~80년대에 걸쳐 일어난 분석철학의 가장 중요한 혁명적 방향전환의 기원에 관한 우리식의 논쟁이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오늘날 모습의 분석철학이 시작한 이래로 제가 철학에 입문하던 70년대 중반 이후까지도 ‘분석철학’은 ‘언어분석철학’과 동의어를 뜻하는 것이었고, 50~60년간 영미철학계의 지배적 영향력을 끼친 논리실증주의나 비트겐슈타인, 나아가 ‘번역불확정성’으로 유명한 콰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의 70년 동안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언어와 언어의 의미의 이해에만 초점을 기울이는 듯이 보이는 ‘의미의 전성시대’를 겪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나기 직전 즉 80년대 초반까지도 국내 철학계도 거의 마찬가지, ‘영미철학’, ‘언어분석철학’, 혹은 단순히 ‘언어철학’은 거의 같은 뜻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학한 브라운 대학의 필수과목 목록에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과 논리학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언어철학은 단지 선택

1) 김영정, 『언어 논리 존재: 언어철학 논리철학 입문』, 철학과 현실사, 1997, 제2장.

과목의 하나였을 뿐임을 알고 놀라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게다가 저와 김 선생이 공부했던 대학의 언어철학 과목은,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영어 단어를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쏟아낼 수 있는 기이한 능력이 있는 여교수였습니다. 지금도 김 선생이 극구 말리시던 그 과목을 듣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깊은 후회가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에 걸쳐 크립케와 퍼트넘에 의해 주도되었던, 이른바 ‘새로운 지칭이론’, ‘직접지칭이론’, ‘새로운 본질주의’라 알려진 이론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일견 ‘이순신’, ‘춘원’ 같은 고유명사나, ‘호랑이’ ‘민들레’ ‘물’ 등의 자연종의 이름들과 그 지시체에 관련된, 다시 말해 단순히 다양한 언어적 표현의 의미 그자체로부터, 언어의 본래적 기능중의 하나인 ‘지시’ 관계로의 일시적인 관심의 변화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교수님의 발표문 「지칭: 언어적인가 존재적인가?」, 바로 이런 그 시대의 이 문제에 대한 변혁기의 혼란을 정리하려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러셀은 기술적 지칭론자인가?」라는 논문의 한 절²⁾에서 선생은, 우리가 흔히 언어철학사에서 ‘프레게/러셀식 의미론의 전통’이라고 묶어서 배우는 기술이론적 지칭론 즉 순수 ‘의미론’적 접근법이, 러셀의 그 유명한 ‘한정기술구’ 이론과 ‘논리적 고유 명사’, 나아가 그의 본질적으로 토대론적 직접지와 기술적 지식의 구분에 대한 심대한 오해를 초래하고, 따라서 70년대 중반 이후에야 유행한 크립케, 퍼트넘의 새로운 직접 지칭론의 원초적 뿌리는 러셀에 이미 마련되어있었다는 매우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해석을 명료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언어철학의 ‘지칭이론’의 해석에 대한 논란, 아니면 한 철학자의 이론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으로 기억할 수도 있는 이 논란을 사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제가 재음미해 볼 것을 여러분께 권유하는 이유는 이 시기 즉 1970년 무렵부터 80년대 중반까지의 영미철학사를 조금만

2) 김영정(1997), *ibid*, pp.36-41.

반성해보면 자명해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듯, 인식론에서 알빈 골드만의 유명한 “인과적 지식이론”³⁾이 나온 것이 60년대 말의 무렵이고, 영미철학에서 ‘인과관계’ 자체에 대한 논의를 터부시했던 경험론적 전통의 대부 흄 자신의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이, 흄이 ‘사건(event)’이라고 부르는 관계항의 존재론적 규정과 일관적일 수 없다는 김재권교수의 기념비적 논문⁴⁾이 나온 것도 이 무렵의 일입니다. 사소한 언어철학 및 논리철학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인 존재론적 범주의 문제로 발전하고 그 결과 우리가 익히 아는 데이비슨식 ‘무구조적(unstructured)’ 토른 사건론이나, 김재권식 구조적 개별자로 알려진 ‘사건존재론’이 탄생한 것도 이시기에 접화한 논쟁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심리학에서 인과기능주의가 유행하고 ‘인지과학’ 야심찬 출발을 시작한것도, 나아가 과학철학의 험펠식의 DN모델의 붕괴하고 대안으로 인과적 과학적 설명모델이 등장한 것도 이시기입니다.

김선생이 손수 번역하신 퍼트넘의 『표상과 실재』라는 유명한 저작의 책 제목이 암시하듯, 바로 이 시기에 영미철학자들은 표상, 즉 언어와 의미를 넘어, 실재 (reality) 즉 세계에로 나아갔습니다. 20세기의 전반 60년간을 지배했던 실증주의가 무너진 자리, 제가 ‘의미의 전성시대’라 불렀던 시대의 황혼 무렵에 새로운 형이상학이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현대철학의 진행은 저의 이런 제안에 대한 확증사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 아시듯 80년대 후반 이후 영미철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심신인과관계의 형이상학적 해석과 물리주의에 관한 논란이었고, 21세기는 의식의 문제와 인지과학의 뇌과학의 문제가 새로운 탐구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선생의 철학함의 모습의 단편은 외국 철학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

3) Goldman, Alvin, “A Causal Theory of Knowing,” *The Journal of Philosophy* 64, 1967, 355-372.

4) Kim, Jaegwon, “Causation, Nomic Subsumption, and the Concept of Event,” *Journal of Philosophy* 70, 1973, 217-236.

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적 단편에 대한 번역 작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선생의 주요 번역 작업은 퍼트넘의 『표상과 실재』, 벤슨 메이츠의 표준적인 1차양화논리 교과서인 『기호논리학』, 블로스와 제프리의 『계산가능성과 논리』 세 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퍼트넘의 원저, *Representation and Reality*가 발간된 것은 1988년 이고, 선생의 번역이 국내 출간된 날짜가 92년 9월 20일입니다. 이 번역작업에 대한 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퍼트넘의 이 책을 교재로 성균관 대학교의 이좌용 교수와 공동세미나를 한 것이 1989년 가을 학기인 듯싶다. 그 학기에 이 책의 상당부분을 번역하였으나, 이 책이 나오기까지 거의 만 3년이 걸렸다. 그동안 이 번역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만도 두 번이나 바뀌었다. 맨 처음 팔란티어 조합형을 쓰다가, ... 팔란티어 표준형으로 바꾸었고, 그 뒤 여러모로 기능이 나은 한글로 바꾸었다...

나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번역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직접 저서를 내겠다고 마음 먹었다...

물론 번역이 번역으로만 끝난다면, 한국의 철학은 그 독창성을 결여한 소위 수입철학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수입철학 만으로는 한국 철학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다 정확한 (방법론을 포함한) 내용 이해와 보다 정확한 우리 말 표현이 한국철학의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번역은 중요한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성의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⁵⁾

출간된 지 1년도 안 된 신간서적을 ‘거의’ 완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가 (즉 92년 아마 ibm 386시대일 겁니다) 바로 국내에서 드디어 PC혁명이 일어나고, 제대로 된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등장한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번역이 ‘생각한 것보다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작업이라는 선생의 자각은 결국 전무후무한 번역서적을 탄생시킵니다. 원문의 총 분량은 15-262, 약 240쪽 정

5) 퍼트넘, 힐러리, *Representation and Reality*(MIT Press 1988), 김영정 역, 『표상과 실재』, 이화여대 출판부, 1992, p.5-6.

도이고, 여기서 참고문헌과 원문을 빼면, 약 200쪽 정도의 원문이지만, “역자후기”라고 부기된—‘보다 정확한 (방법론을 포함한) 내용 이해’를 위한—번역자의 해제가 딱 100쪽의 분량입니다. 한편의 알뜰한 책을 써도 좋을 만큼의 내용을 단지 독자의 이해를 위해 제공하는 김 선생의 작업 모습에는 늘 ‘치열함’ 혹은 ‘철저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철학적 일관적 태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생의 치열함과 철저함은 중급논리의 표준적인 교과서의 번역인 『계산 가능성과 논리』에서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번역본은 두 가지 점에서 여타 다른 일반 번역본과는 다르다. 첫째, 원서에서 발견되는 식자상, 내용상의 오류를 저자와의 상의 하에 상당부분 수정하였다… 따라서 번역본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판 번역본을 참조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가 이 책에 적용될 것이다. 둘째, 이 번역본에는 영어 원서에 없는 “괴델 방법에 따른 결정불가능성”이란 새로운 절이 10장 끝에 추가되어있다… 영어판에도 수록하기 전에 한국어 판에 실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 볼로스 교수에게 감사한다.⁶⁾

II. 논리학, 논리학의 교육과 보급

자연스럽게 논리학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지난 사반세기 한국의 논리학의 교육과 보급 그리고 대중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과 업적을 남기신 분이 김 선생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논리학과 관련된 선생의 업적과 기여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약간의 역사적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언급한 70~80년대 영미철학에서의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난 후 90년대 철학과 사회동향,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를 조금은 회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실로 90년대는 흥미진진한 년대였습니다. 김 선생의 위

6) 김영정 역, 『계산가능성과 논리』, 문예출판사, 1996 x.

인용문에도 잠깐 드러나지만, 80년대 초부터 유포되기 시작한 pc가 고가의 장난감에서, 사무자동화, 논문작업 등 현대의 필수적인 정보처리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고, 텔레워드, 팔란티아, 보석글, 한글 등 제대로 된 워드프로세서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도 90년대 초의 일입니다. (여담으로 86년도부터이던가, 몇 천만불짜리 브라운대학 mainframe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를 애용하시던 은사님 치شم 교수는 세미나 중에 늘 “아리스토텔레스가 워드프로세서를 썼다면, 세계철학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이라 부르는 통신망이 도입되고 보급되기 시작한 것도 90년대 극 초반의 일이라고 기억합니다. 이 시기에 시작한 pc혁명과 인터넷통신혁명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를 바꾸었는가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99년도 교환교수로 미국에 가서야 깨달았지만, 인지과학자들이 ‘인지과학 혁명’의 시대라 부르는 시기였습니다.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과 학습알고리즘, 연결주의 등, 인공지능이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격변을 겪던 시대로 기억합니다. 오랜 군정이 종식하고 이른바 ‘YS 문민 정부’가 들어선 것도 90년대 초반입니다. 민주화·자유화의 바람 속에 고교 수능에 추리논증이 출제되고, 일선 고교에서 꽤 많은 학교들이 고교철학 수업을 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입니다. 당시 민방과 교육방송 저녁시간에, 어린이 ‘논리교육’시간이 방영되고, 논리학자들이 tv에 출연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고, “논리야 놀자”던가 일종의 논리학 책이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단군 이래의 희유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라 기억합니다. 물론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시내 대형서점마다 논리 논술 코너가 따로 있고, 요즘처럼 논리학이 대학의 일반교양으로 널리 보급되는, 아직도 제 눈에는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는 90년대가 아니었나 기억합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쓰는 순간, ‘논리학’라는 단어로 구글 한글자료를 검색한 결과는 4,340,000개 / 0.35초라는 데이터를 뿌립니다.)

제 생각으로 이처럼 이 땅의 논리학 교육과 보급의 큰 진전이 이 만큼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사회적 변화 교육정책적 변화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선생을 위시한 한국논리학회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린이 방송용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짜낸다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모임을 갖던 당시 논리학회 회장이시던 이종권 선생, 김 선생님, 민찬홍, 박우석, 최훈 송하석 선생 기타 이름을 잊은 대학원생들 같은 분들이야말로, 오늘의 상황이 있게 한 지대한 공로자들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선생이 직접 촬영감독을 하고, 당시 30여 명의 한국논리학선생님들의 공동작업으로 나온 『필로지아:논리교실』, 메이츠의 『기호논리학』, 제프리, 블로스의 『계산가능성과 논리』는 각각 현대 논리학의 핵심적인 세 부분, 비판적사고, 초급, 중급논리의 지침이 되는 표준적인 저서이자 번역서들입니다. 번역처럼 ‘공력이 많이 드는’ 그리고 30명의 학자를 동원하는 매우 번잡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3부작을 추진하는 철저함의 배경에는, 제 생각으로 무엇보다, 한국의 후학들을 위해 “논리학에 대한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철학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의 없게” 하려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은 후학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자의 따뜻한 충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학과정에서 대개 1차 논리의 완전성이나 건전성에 관한 기초적인 중급논리학의 내용을 배우게 마련이지만, 20세기 메타논리와 수리논리의 꽃이라고 불려야 할, 타르스키정리, 처치정리, 괴델의 정리들은 대개 논리학이 전공자가 아니면 건너뛰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선생의 두 편의 논리학 논문, 즉 “타르스키 정리, 처치 정리 그리고 괴델 정리”, 그리고 “이차 논리학의 완전성과 불완전성”⁷⁾ 앞으로도 오랫동안,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 이들 메타 수리논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논문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편의 3정리에 관한 내용은 제프리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7) 김영정 (1997), 『언어 논리 존재』, 제 11장 및 12장.

제 경험상, 그 책이 그리 친절한 책도 아니고,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미 증명된 것들을 머리를 뜯어가며 증명해 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선생이 핵심을 짚러 설명해 주시듯, 학부 2학년이면 배우는 ‘이 문장은 거짓이다’와 같은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산술언어와 논리 언어에 적용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아이디어와 약간의 수학적 테크닉을 이해하면 이 유명한 논리수학사의 금자탑들에 접근하는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92년⁸⁾에 발표된, 「이차 논리학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이란 논문은 특히 괴텔과 리온 헨킨(Leon Henkin)에 의한 완전성 증명의 궁극적 차이에 대한 아둔한 저의 개인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전에 써놓으셨던 원고’를 손봐서 세상에 나오게 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차 양화논리 체계의 경우에는 상황이 앞똥달똥하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차 논리학의 불완전성이 1931년 괴텔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듣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1947년에 이차 논리학을 포함하는 고차 논리학 일반의 완전성이 헨킨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듣기 때문이다.⁹⁾

괴텔의 표준적 증명과 헨킨의 이른바 ‘헨킨 모델’에 의한 고차논리학 일반의 완전성 증명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메타논리학의 철학적 함축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금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적절히 지적하듯, 메타논리학과 그에 관련된 정리들은 임의의 학문의 영역이 주어졌을 때, 그 “영역의 궁극적인 체계화가 적절한 체계화인지 검토하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최고의 방식이자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헨킨의 이른바 ‘최대함으로 일관적인 집합’과 ‘effectiveness’ 개념으로 구성된 2차 논리학의 완전성 증명은, 고차논리 일반에 대한 증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논리학사에 ‘생략

8) 김영정·박우석, 「이차논리학의 완전성과 불완전성」, 『철학』 제 37집, 1992, 207-233.

9) 김영정, 『언어 논리 존재: 언어철학 논리철학 입문』, 철학과 현실사, 1997, 316.

되어진’ 부분입니다. ‘논리학의 많은 부분은 종이위에 직접 손으로 지루한 증명을 그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논문의 증명은 늘 소중한 마음의 선물처럼 남아있습니다.

Ⅲ. 형이상학에서 가치론까지

다 아시겠지만, 선생의 원래 주전공은 형이상학이자 존재론의 문제, 특히 현대의 사건 범주론에 관련된 기초존재론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70년대 분석철학 혁명기의 모두에 데이비슨, 김재권, 치좀 교수들이 벌인 사건의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본성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심리학의 철학’이란 이름의 분석적 비판적 형이상학의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는 논쟁이었습니다. 2500년 유구한 서양철학사의 기초존재론을 지배해온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개체/속성이란 두 범주 존재론의 근본적 변혁을 초래한 이 논쟁은 지금 돌이켜보면, 실은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세 문장은,

1. 세바스찬은 오후 2시에 빠르게 산책하였다.
2. 세바스찬은 오후 2시에 산책하였다.
3. 세바스찬은 산책하였다.

어려운 논리학적 지식 없이도, 순차적으로 1)이 2)를 2)가 3)을 함축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문장들 간의 함축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형식은 무엇일까 하는 논란으로 발전하고, 그 논란은 나아가 이 형식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자들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함축하는가 하는 문제로 진행됩니다. 이 논쟁의 구체적 진행과정은, 언어적 논란에서 출발하여 논리학을 거쳐, 궁극적으로 존재론이란 형이상학으로 나아가는 분석철학적 존재론의 모범과 같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 대한 정교

하고도 아름다운 묘사는 선생의 『언어논리 존재』에 실린 논문, “부사구 수식의 문제”와 “인과관계의 논리형식”의 주제¹⁰⁾입니다.

오늘날 물론 여러분은 이 ‘지나간’ 논란의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의 심리철학의 상식으로 기술하자면, 심신인과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과관계의 관계항은, 데이비슨식 ‘무구조적 개별자’, 혹은 김재권식 ‘구조적 개별자’ 둘 중의 하나일 것이고, 이들 간의 존재론적 선택은 단지 ‘세밀한(fine-grained)’ 사건존재론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보다 ‘거친(coarse-grained)’ 사건존재론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취향상의 문제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선생에 따르면, 사건의 존재론적 본성을 묻는 문제는, 서양 철학사의 가장 오래된 전통적 존재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범주 존재론의 궁극적인 적법성을 묻는 심원한 존재론적 함축을 가진 문제입니다. 이 함축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김재권식이든 데이비슨식이든, 사건이 개별자라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개별자인가? 전통 두 범주 존재론이 옳다면, 개체는, 통상 아리스토텔레스식, 구체적 개별자 밖에 없으므로, 이 질문은 우리가 통상 ‘사건’이라고 부르는 개별자가, 과연 이 책상 이 나무와 같은 종류의 구체적 실체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김재권에 따르면, 자신의 사건은, 아리스토텔레스식 실체, 즉 이 나무와 이 책상 같은 대상과 속성을 “전제” 하고 있지만, 이 책상과 나무와 같은 개체와는 존재론적 본성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구별되어야만 하는 독립 존재자라고 주장합니다.¹¹⁾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개체’로서의 사건이 전통적 실체/속성의 두 범주에 존재론적인 환원이 불가능한 근원적 존재자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결국 김재권이 옳다면, 2500년 동안 당연시해 왔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두 범주 존재론이란 기초존재론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이론이고 수정되어야만 하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의 전 모습을 보여주지 못

10) 김영정, 『언어 논리 존재』, 제7장 및 8장, 1997.

11) 김재권, op. cit.; 김재권, 『수반과 심리철학』, 철학과 현실사, 제1부 특히 11-87 참조.

하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범주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제3의 범주없이 세계의 완전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전통적 기초존재론의 적법성여부는, 김재권 혹은 데이비슨식 사건존재론이 전통적 실체 속성 두 범주 존재론의 카테고리 내에서 존재론적 환원이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이론적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치섬교수는 전통적 존재론을 옹호하기 위한 존재론적 환원을 그의 독특한, 사태/사상 개념을 통해 수행합니다.¹²⁾ 김 선생의 『사건존재론』은 바로 이 치섬식 환원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논증하는 논문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제 3범주로서의 사건론은 현대의 주도적인 존재론으로 자리를 굳힌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공정하게 말해, 김 선생식의 존재론적 환원 여부에 달린 이론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데이비슨의 사건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 보입니다. 주지하듯, 유명한 그의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나는 배가 고프다’라는 심적 믿음상태는, 그 순간 두뇌의 어디선가 발생하는 ‘어떤 것’—흔히 ‘토큰 사건’이라 불리는—에 대한 정신적인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두뇌에 발생하는 사건은 ‘두뇌의 신경생리학적 상태 x ’와 같은 물리적인 기술도 참이므로 ‘물리적’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개체로서의 하나의 사과가 ‘빨갳고’, ‘크고’, ‘맛있고’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될 수 있듯, 개체로서의 하나의 사건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기술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무구조적 토큰 사건은 동시에 정신적 물리적으로도 기술 될 수 있지만, 이 다양한 기술들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무법칙이라는 주장은 그의 심신이론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비슨의 사건이 어쨌든 ‘개체’인 한 그것은 어떤 종류의 개체인가 하는 물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구체적 개별자인가? 그의 이론에 비추어보면, 하

12) Chisholm, R., “Events and Propositions”, *Nous* 4, 1970, 15-24.

나의 사건은 정신적 물리적, 혹은 생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지만, 이 다양한 기술들은 기술되고 있는 대상 자체, 즉 토른 사건의 그 어떤 존재론적 구조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무구조적’ 개체이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로부터 우리가 대상자체의 특성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김재권식 구체적 사건과 구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하나의 사과를 “빨갳고, 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기술로부터 사과라는 실체 자체의 특성을 포착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든, 데이비슨식 사건은 전통적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체일 수는 없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제아무리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할지라도, 그 다양한 언어적 개념적 기술이 기술되어지는 개체의 본질적 특성은 결코 포착할 수 없어야 하는 ‘무구조적’인 어떤 것이란 개념에 부합하는 ‘존재자’는 제 빈약한 철학사적 지식에 비추어 보면, 로크가 말했던 ‘무속성의 기체(substratum)’, 혹은 보다 적절히 이좌용 교수가 ‘별거숭이 개별자’라 부르는 기체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 관점에서는 ‘불가해한’ 개념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데이비슨식 ‘사건’을 로크(Locke)식 ‘기체’로 해석하는 저의 주장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실제로 통상 데이비슨식 ‘사건’의 외연은, 그의 스승이었던, 콰인의 데모크리토스 원자론적 개체, 즉 ‘물체의 시간적 단면’이나 ‘시공간 영역의 물질적 영역’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데이비슨식 토른 사건은 일정한 시간적 길이를 갖는 탄소, 수소, 산소 전자 같은 원소들의 다발 같은 외연을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데이비슨의 사건존재론은 김재권처럼 전통적 존재론의 궁극적 변혁을 요구하는 독자적 제 3범주론적 존재론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콰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대상은... 사건과 구별될 수 없다... 각각은 그것이 제아무리 이질적이고 무질서한 것일지라도, 단지 특정 시공간 영역(some portion of space-time)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¹³⁾

행위나 활동은 특정 시간의 행위자 혹은 행위자들의 시간적 부분들로 이루어진 물리적 대상과 동일시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산책과 껌 씹기처럼 동시에 이루어진 두 개의 행위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근거에서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필요한 모든 구별은 일반 명사의 수준에서 여전히 구별되어질 수 있다. 모든 산책이 껌 씹기인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껌 씹기가 산책인 것도 아니다. 단지 가끔 껌 씹기는 산책이기는 하지만.¹⁴⁾

주지하듯, 콰인 존재론의 궁극적 개체는, 시공간영역의 물질적 내용,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무수한 원자 분자 전자들의 순간적 다발 뿐이고, 사과 같은 물체나 사과에 발생하는 ‘사건’은 모두 이 순간적 다발의 논리적 구성물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콰인에게 있어 사건은 (물론 이 사과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체조차도) 그가 대상의 시간적 단면이라 부르는 궁극적 개체, 즉 원자들의 순간적 다발들로 존재론적으로 환원되는 픽션일 뿐입니다. 콰인이 치중이나 김선생과 다른 것은 단지 상이한 기초 존재자를 사용하여 그 환원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데이비슨의 ‘사건’을 콰인식의 대상의 시간적 단면으로 해석한다면, 그의 ‘사건’은 콰인적 의미에서 근원적인 존재자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철수와 철수에 발생하는 일이나 사건이란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구분을 포기해야 만합니다. 왜냐하면 콰인이 말하듯 ‘대상과 사건은 (근본적으로) 구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콰인의 존재론도 카테고리적으로는 역시 두 범주 존재론에 속하고,¹⁵⁾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환원주의적 개체 일원론이고) 단지 그 구성이 반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원자론적인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일원론적 개체와 구별된다는 의미에서의 독자적인 독립적

13) Quine, W. O., *Word and Object*, Cambridge, MIT Press, 1960, 170.

14) Quine, W.O., *Theories and Thing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11-12.

15) 콰인은 물론 전통적 ‘속성’ 카테고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명론적이지만, 그의 궁극적 존재론은 수학적 참의 보장을 위해 집합이라는 추상자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두범주적이다.

‘사건 존재론’이란 콰인식 해석으로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사건 존재론입니다.

더구나 문제는 데이비슨 자신이 명시적으로 물리적대상과 물리적 대상에 발생하는 사건을 동일시하는 스승의 이런 존재론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듯이 보인다는 점에 있습니다.

두 개의 상이한 변화가 하나의 실체 전체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예컨대, 쇠로 만든 공이 특정 시간 동안에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35도 회전하였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¹⁶⁾

따라서 우리는 데이비슨의 ‘사건’이란 개체는 로크 식 벌거숭이 개별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체적 실체도 아니며, 콰인의 시공간 영역의 내용으로서의 개체도, 그 논리적 구성물도 아니며, 김재권식 구조적 개별자도 아닌 ‘어떤’ 무엇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 개체와 추상자들 외의 독자적인 존재자들일 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김재권 선생의 아래와 같은 구절에서 저와 유사한 의혹의 느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연도는 94년입니다.)

최근에 데이비슨은, 사건을 시공간상의 영역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봄으로써 사건과 물리적 대상(또는 실체) 사이에 게재하는 중요한 존재론적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콰인의 관점을 받아들여 왔다. 내가 보기에 데이비슨이 발전시켜온 이론은 사건 담화에 관한 의미론적 이론으로서 가치있고 흥미로운 철학적인 공헌이기는 하지만 사건들의 형이상학적 본성을 규명하는 포괄적인 형이상학 이론은 전혀 아니다.

... 결국 사건 개념을 규명하려는 사람은 사건을 시공간 영역의 내용과 동일시하는 콰인의 이론과 속성 예화로 보는 나의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는데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후자를 선택하리라 예상된다.¹⁷⁾

16) Davidson, D., “The Individuation of Events,” in *Actions and Event*, (Oxford, 1980), 178.

17) 김재권, 『추억과 회상』, 김재권 외 지음, 『수반의 형이상학』, 철학과 현실

제 생각에 대체로 환원주의적이고 심신 속성이원론적인 데이비슨의 심신론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심정적 옹호자가 있는 영향력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사건 존재론에 관한 중요한 존재론적 긴장을 깊이 감추고 있는 이론이고, 이런 통찰은 김영정 선생의 “사건 존재론”이란 논문에 깔려 있는 중요한 통찰이 아닌가 합니다. 김재권의 사건이 치섬·김영정식의 전통적 두 범주 존재론에 대한 환원 불가능성을 넘어설 수 있는 데 있다면, 데이비슨의 그것은 좌인의 원자론적 환원가능성논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론적 문제 해결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더구나 김재권선생의 관찰이 옳다면, 데이비슨의 좌인존재론으로의 회귀는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좌인의 존재론은 사건과 실체간의 궁극적 존재론적 차이가 없다는 존재론적 환원주의이고 그렇다면 데이비슨의 사건론은 실체(혹은 속성)와 구별되는 존재론적 범주로서의 ‘사건론’으로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IV. 남은 이야기

눈치가 빠르신 분은 진작에 알아 채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저처럼 공력이 미흡하고 내공이 얕박한 사람의 발표는 지루할 뿐만 아니라, 매우 장황해지기 쉽습니다.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3절의 제목은 ‘형이상학에서 가치론까지’지만, 그 절에서 가치론은 언급조차 못했습니다.¹⁸⁾ 선생의 글부터 인용합니다. 『가치론의 주요 문제들』이란 저서의 서론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언젠가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의 서문 어디에선가 인생에

사, 1994, 26-27.

18) 물론 모두에서 언급했던, 심신론, 인지과학, 수반론도 빠트린 항목이다. 다행히 이는 다음 강연의 주제들이다.

서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라는 내용의 글귀와 마주친 적이 있다. 그 후 이 문제들은 필자에게 화두로 다가왔고, 결국 필자는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도가 되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가장 가치있는 목적을 추구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성과물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삶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치 있는 목적이… 일이… 성과물이 무엇 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과연 가치 있는 목적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있거나 한것일까? 정말 어렵다.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문제는 이성과 감성 사이의 조화의 최적화 (optimization)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이성과 감성 사이의 최적화 상태는 어떤 것이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최적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의 최적화 상태와 상대방의 최적화 상태는 같을 수 있을까? 정말 어렵다.¹⁹⁾

현대논리학도 어렵고, 그 논리학을 통해 접근하는 현대 존재론과 형이상학 문제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의 동굴에 들어가, 우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흄, 콰인과 같은 인류지성사의 기라성 같은 지적 거인들과 정직한 지적 대결을 하지 않는다면, 그 동굴은 언제나 끝이 없는 미로의 연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신히 한줄기 빛을 얻어 그 동굴을 빠져나온다 쳐도, 자신이 발견한 형이상학의 빛줄기 속에,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거주할 거처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지 새로운 동굴의 미로에 들어선 것뿐이라는 것을 암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말하듯,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은 철학이란 전체의 이음매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신의 인식론과 가치론을 자신의 형이상학과 조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저는 선생님의 말을 그저 따라하는 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말 어렵다”고.

현대 양자물리의 위대한 학자 하이젠베르크의 명저, 『부분과 전체』²⁰⁾

19) 김영정, 『가치론의 주요문제들』, 철학과 현실사 2005, 머리말.

20) 하이젠베르크, 베르너, *Der Teil und das Ganze*, 김용정 역, 『부분과 전체』, 지식산업사, 2009. 3.

라는 책의 첫 구절은 “과학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철학도 물론 사람이 합니다. 과학에서는 그래도 만들고 관찰하고 실험할 것이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철학은 만들 수 있는 것도 관찰할 것조차 없습니다. 가진 것은 철학하는 사람, 즉 철학자들 밖에 없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구절을 ‘과학이 앞선 세대의 과학자들의 탐구와 그 방법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 데서 성립하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철학도 선배철학자들의 철학함을 다음 세대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성립하는 진정으로 인문적인 전통의 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 철학함의 전범을 보여주셨던 선생이 그림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림습니다.²¹⁾

임일환
한국외국어대학교

21) 끝으로 미흡한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날카로운 비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시한다.

참고문헌

- 김영정, 『언어 논리 존재: 언어철학 논리철학 입문』, 철학과 현실사, 1997, 제2장.
- _____, 『가치론의 주요문제들』, 철학과 현실사, 2005.
- 김영정·박우석, 『이차논리학의 완전성과 불완전성』, 『철학』 제37집, 1992, 207-233.
- 김영정 외, 『필로지아』, 오란디프, 2002.
- 김재권, 『수반과 심리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4.
- 김재권 외, 『수반의 형이상학』, 철학과 현실사, 1994.
- 메이츠, 벤슨, *Elementary Logic* (Oxford UP, 1972), 김영정·선우환 역, 『기호논리학』, 2004.
- 블로스, G. & 제프리, R., *Computability and Logic* (Cambridge UP, 1989), 김영정 외 역, 『계산가능성과 논리: 수리논리학 입문』, 문예출판사, 1996.
- 퍼트넘, 힐러리, *Representation and Reality* (MIT Press, 1988), 김영정 역, 『표상과 실재』, 이화여대 출판부, 1992.
- 하이젠베르크, 베르너, *Der Teil und das Ganze*, 김용준 역, 『부분과 전체』, 지식산업사, 2005.
- Chisholm, R., "Events and Propositions," *Nous* 4, 1970, 15-24.
- Davidson, D., "The Individuation of Events," in *Actions and Ev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Goldman, Alvin, "A Causal Theory of Knowing," *The Journal of Philosophy* 64, 1967, 355-372.
- Kim, Jaegwon, "Causation, Nomic Subsumption, and the Concept of Event," *Journal of Philosophy* 70, 1973, 217-236.
- Quine, W. O., *Word and Object*, Cambridge, MIT Press, 1960.
- _____, *Theories and Thing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ABSTRACT

From Metaphysics to Value Theory
—In Memory of Prof. Kim, Young-Jung—

Rim, Ill-Hwan

In this lecture, I review and evaluate the implications of Professor Kim, Young-Jung's philosophical works. First, I review his unique style of philosophizing, related mainly to logic and metalogical works. In the second part, I draw attention to the deep philosophical implication of Prof. Kim's ontological reduction project concerning the contemporary 'event ontology' championed by Jaegwon Kim and/or D. Davidson. Unlike Jaegwon Kim's 'fine-grained' event particular ontology, I argue that Davidsonian event ontology does not fit well into the third category ontology. The Davidsonian view, I claim, hides deep ontological tension generated by his ambivalent attitude toward W. Quine's famous 'temporal parts' monistic ontology. Finally, I try to show that any metaphysical view cannot be complete without making one's value commitment sensible within its coherent world view.

Keywords: Logic, Philosophy of Logic, Event Ontology, the Third Category Ontology, Ontological Reduction